제5절 순천의 농민운동*

1920년대에 전개된 순천의 농민운동은 일제 강점기의 모든 지역 민중운동 가운데 가장 장기적으로 지속된, 가장 잘 조직된 운동의 하나로 평가된다. 당시의 사정은 소수 생존인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고, 입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내려오고 있으며, 해방 후 편찬된 순천·승주의 군·읍지에도 간략하나마 언급되어 있다. 지방사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하다는 전반적 사정을 고려할 때 순천 농민운동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미흡하다는 사실은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전제로 하고 본다면, 순천 농민운동은 지방 민중운동의 사례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일제 강점기 민중운동사에서 순천 농민운동이 차지한 비중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농민운동사를 개관한 조동걸(趙東杰)의 선구적 연구는 1920년대 초반의 대표적 농민운동 사례로서 순천의 면별 소작쟁의를 언급하면서, 이들 소작쟁의가 농민운동 전반의 조직화 경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후를 보여주었음을 강조했다. 그후 1980년대에 접어들어 일본인 학자 가네모리 요오시꾸(金森襄作)가 진주와 순천의 농민운동을 함께 검토하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운동사적 관심은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그는 순천의 농민지도자들이 군 전체에 1만 1,000명의 회원을 갖는 엄청난 규모의 농민조합을 결성하는 데 성공했는데도 사회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을 결합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중에 뿌리를 둔 운동을 발전시키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발표된 일본인 학자 오와 가즈아끼(大和和明)의 논문은 앞에 비해 더욱 풍부한 사실(史實)을 기초로 하여 순천 농민운동의 전개과정을 잘 정리하였다. 오와 가즈아끼는 순천 농민운동이 민족주의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가네모리 요오시꾸의 지적을 비판하면서 온건한 실력양성 중심의 민족주의적 노선이 순천 농민운동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후 언론인 한송주(韓松周)도 순천 농민운동을 지방종합지의 특집기사로 3회에 걸쳐 소개한 바 있다. 필자 역시 일제 강점기 순천의 사회상을 재구성하고 법사회사와 역사인류학의 방법을 소개하는 일환으로 순천 농민운동을 언급한 바 있다.[1)]

그러나 선행하는 연구들은 순천사회의 지방사적 맥락을 조명하고자 하는 이 책의 목적과 다소 다른 관심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 글에서는 농민운동이 순천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문제를 중심에 두고 그간 언급되지 않은 운동의 면모들을 그림

---

* 제5절은 이철우(李喆雨) 집필임.

1) 이상에서 언급된 연구들을 나열해보면 조동걸,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 한길사, 1978, 114~118쪽 ; 金森襄作, 「조선농민조합사-1920년대 진주·순천을 중심으로」, 『식민지시대 한국의 사회와 저항』, 백산서당, 1983 ; 大和和明, 「1920년대 전반기의 조선 농민운동-전라남도 순천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抗日農民運動硏究』, 동녘, 1984 ; 한송주, 「1922~1925 순천소작투쟁」 상·중·하, 『藝鄕』 1989, 1·2·3월호 ; 이철우, 「인류학과 사회사의 접점에서 본 법」, 『법사회학의 이론과 방법』, 일신사, 1995.

속에 끌어들임으로써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한편 이 책에는 순천지역 소작쟁의의 역사적 의의와 전개과정에 관한 지수걸(池秀傑)의 글이 함께 준비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순천 농민운동의 전개와 추이 및 그것이 농민운동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에 관하여는 지수걸의 논의를 어느 정도 전제로 하고자 한다.

제5절 순천의 농민운동*

1920년대에 전개된 순천의 농민운동은 일제 강점기의 모든 지역 민중운동 가운데 가장 장기적으로 지속된, 가장 잘 조직된 운동의 하나로 평가된다. 당시의 사정은 소수 생존인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고, 입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내려오고 있으며, 해방 후 편찬된 순천·승주의 군·읍지에도 간략하나마 언급되어 있다. 지방사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하다는 전반적 사정을 고려할 때 순천 농민운동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미흡하다는 사실은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전제로 하고 본다면, 순천 농민운동은 지방 민중운동의 사례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일제 강점기 민중운동사에서 순천 농민운동이 차지한 비중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농민운동사를 개관한 조동걸(趙東杰)의 선구적 연구는 1920년대 초반의 대표적 농민운동 사례로서 순천의 면별 소작쟁의를 언급하면서, 이들 소작쟁의가 농민운동 전반의 조직화 경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후를 보여주었음을 강조했다. 그후 1980년대에 접어들어 일본인 학자 가네모리 요오시꾸(金森襄作)가 진주와 순천의 농민운동을 함께 검토하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운동사적 관심은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그는 순천의 농민지도자들이 군 전체에 1만 1,000명의 회원을 갖는 엄청난 규모의 농민조합을 결성하는 데 성공했는데도 사회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을 결합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중에 뿌리를 둔 운동을 발전시키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발표된 일본인 학자 오와 가즈아끼(大和和明)의 논문은 앞에 비해 더욱 풍부한 사실(史實)을 기초로 하여 순천 농민운동의 전개과정을 잘 정리하였다. 오와 가즈아끼는 순천 농민운동이 민족주의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가네모리 요오시꾸의 지적을 비판하면서 온건한 실력양성 중심의 민족주의적 노선이 순천 농민운동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후 언론인 한송주(韓松周)도 순천 농민운동을 지방종합지의 특집기사로 3회에 걸쳐 소개한 바 있다. 필자 역시 일제 강점기 순천의 사회상을 재구성하고 법사회사와 역사인류학의 방법을 소개하는 일환으로 순천 농민운동을 언급한 바 있다.[1)]

---

* 제5절은 이철우(李喆雨) 집필임.

1) 이상에서 언급된 연구들을 나열해보면 조동걸,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 한길사, 1978, 114~118쪽 ; 金森襄作, 「조선농민조합사-1920년대 진주·순천을 중심으로」, 『식민지시대 한국의 사회와 저항』, 백산서당, 1983 ; 大和和明, 「1920년대 전반기의 조선 농민운동-전라남도 순천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抗日農民運動硏究』, 동녘, 1984 ; 한송주, 「1922~1925 순천소작

그러나 선행하는 연구들은 순천사회의 지방사적 맥락을 조명하고자 하는 이 책의 목적과 다소 다른 관심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 글에서는 농민운동이 순천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문제를 중심에 두고 그간 언급되지 않은 운동의 면모들을 그림 속에 끌어들임으로써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한편 이 책에는 순천지역 소작쟁의의 역사적 의의와 전개과정에 관한 지수걸(池秀傑)의 글이 함께 준비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순천 농민운동의 전개와 추이 및 그것이 농민운동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에 관하여는 지수걸의 논의를 어느 정도 전제로 하고자 한다.

투쟁」 상・중・하, 藝鄕』 1989, 1・2・3월호 ; 이철우, 「인류학과 사회사의 접점에서 본 법」, 법사회학의 이론과 방법』, 일신사, 1995.